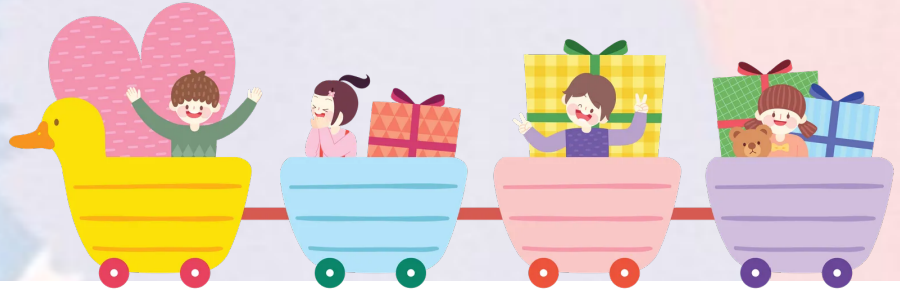


유아교육과 06학번

김연화 졸업생

서구 중앙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Q1. 광주여자대학교는 원장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광주여대는 단순히 학위를 취득한 곳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세워준 성장의 터전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 학사·석사·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교사에서 부원장, 원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 왔습니다.

Q2. 원장으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가요?

부임 당시 무너진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정기 간담회와 스마트 알림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이후 56명이었던 원아가 139명 정원을 모두 충원하고 신입 원아 모집 시 130명 이상이 대기하는 기관으로 변화했으며, 무엇보다 아이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기관으로 변화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Q3. 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다양한 성과도 거두셨는데요.

평가인증 A등급, 3회 연속 우수 열린어린이집 지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교육감 표창, 광주광역시장상 등을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연구와 학술 발표도 지속하며 모교 총장상 표창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Q4.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모교와 후배들에게도 나누고 계신다고요.

광주여대 대학원 졸업생들과 '마주봄 연구동아리'를 결성해 회장을 맡았으며, 유아교육과 제1회 원우회 창립 멤버이자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모교의 시간강사와 평생교육원 강사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실무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Q5.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데요.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및 보장협의체 위원, 민주평화통일 상임위원으로 공공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6. 유아교육·보육 분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광주여대에서 쌓은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과 보육현장, 행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우수사례와 연구성과를 후배 및 지역 보육인들과 공유하고 교육·멘토링 활동을 이어가며 모교에서 받은 배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Q7. 광주여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했으면 합니다. 공감과 소통을 더하고 시련 앞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원칙을 지키며, 광주여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길 응원합니다.